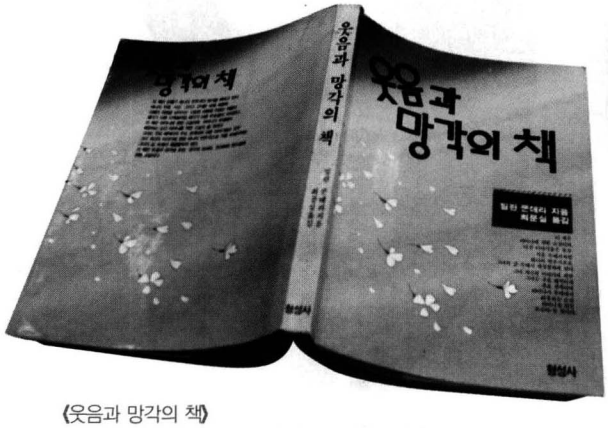

《웃음과 망각의 책》
밀란 쿤데라 지음 | 최문실 옮김 | 형성사 | 절판

《웃음과 망각의 책》

두 사람의 '웃음'과 '망각'에 대한 이야기

글_정윤희 기자

밀란 쿤데라의 작품은 책장을 열고 덮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대표작인《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을 때도,《농담》의 마지막 책장을 넘기기까지, 밀란 쿤데라와 밀고 당기기 게임은 마치 연인 사이라도 되듯 크고 작은 쾌감을 유발했다.

나들이 삼아 헌책방을 쏘다니는 취미를 갖고 있는 나는 신림동의 허름한 책방에서 밀란 쿤데라가 지은《웃음과 망각의 책》을 발견했다. 이 책은 헌책방에서 조차 구하기 힘든 물건에 속한다. 판권을 보니 형성사에서 1990년 3월 10일에 초판 발행했고, 1993년 10월 25일 1판 2쇄를 발행했던 나이테를 지녔다. 지금도 이 소설이 새 얼굴로 나오는지 궁금해 대형서점에 가봤더니 1994년을 끝으로 절판된 책이란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망각돼버린 책이다. 이 책은 쿤데라가 조국을 떠난 지 4년만인 1979년 프랑스에서 불어로 발표한 소설이다. 쿤데라는 작품 속에서 "이 책은 전체가 하나의 변주곡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략) 이 책은 타미나에 관한 소설이며 타미나가 무대에서 퇴장하는 순간 타미나를 위한 소설이 될 것이다. 그녀는 주요 배역이자, 주요 관객이며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그녀 자신의 이야기에 관한 하나의 변주곡으로 거울 속에서처럼 그녀의 삶 속에서 재결합하게 된다. 이 책은 웃음과 망각에 관한, 망각와 프라하, 프라하와 천사들에 관한 소설이다"라고 썼다.

운명적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듯 책과 사람사이도 운명적 만남은 존재한다.《웃음과 망각의 책》을 고민스럽게 만지작거리다가 운명을 선택하자는 확신이 서게 된 동기는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의 명성에 있지 않았다. 소소한 데 있었다. 그 소소함이 주는 매우 강렬한 힘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책 표지를 넘기자 흰색 내지에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상준아! 이 책은 지난 93년 2학기 MOCKBA에서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창문 밖을 간간이 바라보며 읽던 책이다. 밀란 쿤데라는《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다른 소설들도 아주 괜찮은 것들이 많단다. 부대에서, 혹시라도 가끔 시간이 나면 7장으로 나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어보길 바래. 읽다보면 '웃음'과 '망각'의 두 주제가 전 이야기 속에서 얽혀 있는 묘한 Plot의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잘 지내고, 가끔식 누나 생각도 하고. 밥 많이 먹고 살 좀 쪄야겠더라. 1994. 4. 11. 혜승. PS. 시간약속 안 지키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저명한 문학평론가의 작품 해설이 이 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작품도 작품이지만 묘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마치 두 사람의 형상이 만져지기라도 하듯 나는 책의 피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상준과 혜승의 만남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책이 왜 헌책방까지 굴러 들어오게 된 것일까, 혜승과 상준은 서로에게 망각되어 버린 존재가 되었을까, 아직도 웃음을 전해주는 사이일까 등등 온갖 상념들이 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상준은 이 책을 분명 읽었다. 그 흔적이 책 속에 육필로 나타나 있다. "과거를 변화시키기 위해 미래의 주인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은 자서전과 역사를 다시 쓰고 사진을 재손질할 수 있는 실험실로 가려고 애쓴다"(28쪽)라는 문장에 볼펜으로 줄을 긋고 공간에 이런 단상을 써 놓았다. "늘 책을 보면서 계몽적인 어구를 찾아 나 자신을 설득시키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긋지긋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기억은 때론 고통스런 삶이고, 망각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웃음의 의미는 웃음이 차지하는 자리마다 다르다. 책을 덮고 한참 생각을 했다. 밀란 쿤데라는 어떤 웃음을 경멸했는지. 그리고 혜승과 상준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웃음의 의미를.